

또 날치기 국회, 격투기 의원 한나라 3년연속 예산안 강행 처리



8일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민주당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한 데 엉켜 이수리장임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대 의예과 합격선 541점 (표준점수 기준)

조선대 기초의과학부 429점 (백분위 500점 만점)

광주 진학부장협 분석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전남대 의예과 합격선(표준점수 기준)이 지난해보다 4점가량 오른 541.7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예과는 565점, 연·고대는 각각 563, 562점으로 분석됐다.

조선대 기초의과학부(백분위 500점 만점)는 429.12점이 돼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6면) 이는 광주지역 인문계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의 모임인 '광주 진학부장협의회(회장 송덕고 한철민·이하 광진협)'가 2011학년도 수능성적 채점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어려운 수능으로 표준점수가 상승해 의예과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4~8점까지 올랐다.

전남대 의예과의 합격 예상점수는 541.7점, 수학교육과는 498.9점, 간호학과 490.0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문계열에서는 영어교육과 515.0, 국어교육과 514.1점, 경영학부 498.1점, 신문방송학과 490.3점 등이었다.

조선대 간호학과는 417.4점, 영어교육과는 404.8점, 경영학부는 334.8점이 예상 합격점수였다.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점은 557.5점, 자유전공학부는 554.8점, 사회과학 계열은 556.0점으로 예상됐다. 연세대·고려대의 경영대학은 각각 552.9점, 551.7점대로 추정됐다.

서울지역 의예과의 경우 최고 8점가량 합격선이 상승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의 경쟁계열 합격선이 자유전공학부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관측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생명공학과가 540.3점, 전기전자공학과 536.0점, 고려대 생명과학계열 534.9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학과 537.1점, 이화여대 간호과학부는 528.6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광진협은 대학별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가 다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원서를 쓸 때는 목표대학 지원학과 모집단위 특성을 파악해 신중하게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진협은 대학별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가 다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원서를 쓸 때는 목표대학 지원학과 모집단위 특성을 파악해 신중하게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현안 예산 무더기 누락·삭감

2011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3년 연속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국회 상임위 등에서 증액되거나 조정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은 무더기로 누락 또는 삭감됐다. (관련기사 3·4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에 본회의를 진행, 직권 상정 방식으로 새해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청 245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인,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법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한 24개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직을 점거하는 등 새해 예산안과 법안 강행 처리에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본회의장에 진입한 한나

라당 의원들에 의해 30여분 만에 단상에서 끝나왔다. 한나라당이 자체 수정해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은 309조 567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4900억원 가량 삭감된 규모며 2010년 예산보다 5.5% 증가된 액수다.

핵심 쟁점이던 4대강사업 예산이 2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 등 국방예산이 1419억원 증액됐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반영되거나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들이 무더기로 미반영되는 사태를 빚었다.

광주시의 경우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설립 사업, 야구경기장 국고 지원, 광주천 수질개선, 하남산단·소촌산단진입도로 개설, 경전선 핵심 쟁점이던 4대강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전남도도 증액이 절실했던 전주~광양 고속도로(432억원), 목포~광양 고속도로(2785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도 당초 요구액의 절반인 500억원만

반영되면서 여수 엑스포의 성공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

F1 대회(포플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예산도 당초 요구액의 절반 정도인 200억원만 반영되면서 내년 F1 대회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우주로봇연구센터 설립, 국가비행중심시험센터, 해상풍력실용화센터 등 에너지 및 신산업 관련 예산과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사업, 천일염산업연구지원센터, 국제갯벌연구원설립 등 친환경 관련 예산도 무더기로 미반영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50km 구간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사에 들어간 이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자재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설계와 다른 맨홀이 시공업체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공급됐으며, PE(폴리에틸렌) 삼중벽판의 경우 가격이 절반에 불과한 재생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

광주시, 하수관거사업 특별감사 착수

광주시가 '2007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설계와 다른 자재가 사용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12월8일자 1·3면)에 따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8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중인 2007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간사업비 1115억7700만원이 투입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북구 문흥·오치·용봉·우산·매곡·삼각·일곡·각하·두암동 등 9개 동에 걸쳐

제1회 광주·전남 초중생 영어평가대회 오늘 접수 마감

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무산 市, 예산증액 동의안해

광주시의회가 편법 논란 속에 강행했던 '기간제 근로' 형태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광주시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의정관련 조사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 3억5000만원을 광주시에 증액 요청했지만, 시가 동의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애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저절로 무산됐다. 시의회는 안팎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강행하려다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채 여론의 '뭇발'을 맞고 위상만 실추시킨 셈이다.

반면, 광주시의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증액 '부동의' 결정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일부 예산을 증액해줄 것이라

는 기대와 달리 전혀 삭감하려하지, 시의회가 예결위 심의단계에서 추진하는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부동의'라는 '뭇발'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한,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비 20억원,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사업비 3억원 등 '인권도시' 관련 예

산 25억원을 비롯해 모두 869억2200여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추진한 유급보좌관제 집행부의 거부로 무산되고, 집행부는 내년도 주요 예산 삭감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양측의 갈등관계가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신만 우왕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장, 주아랑,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예약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철수연·각종 세미나 (대·중·소 연회장 판매)
이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12월 17일~22일
기초원시접수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내 꿈에 하나 더!

다양한 강의방법 (TV, 멀티미디어, 출석수업 등)
등록금이 저렴하다 (일반대학 1/10, 사이버대학 1/5)
연계전공 운영으로 "사회복지학사" 취득
내 꿈을 더하고 키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 꿈에 하나 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자: 2010. 12.1(수) ~ 2011. 1.12(수)
입학상담 |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nou.ac.kr) 참조

시인을 꿈꾸는 제2 피아니스트 이노경(국어국문학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한의사 최현민 (미디어영상학과)